

한국타이어, 타이어 생산 5억개 달성

1942년 이후 63년만에 ... 국내증설 · 해외투자로 2008년 10억개 돌파

한국타이어는 1942년 타이어 생산을 시작한 이후 63년만에 생산누계 5억개를 돌파했다고 1월3일 발표했다. 타이어를 일렬로 세웠을 때 지구를 5바퀴 이상 돌고 자동차 1억2500만대에 장착할 수 있는 물량이다.

한국타이어는 1962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수출을 시작했고 1990년 1억개, 1999년 3억개 생산을 달성한 바 있다.

1941년 창립된 한국타이어는 현재 동양 최대규모인 대전공장(1979년 준공), 세계 최첨단시설의 금산공장(1991년 준공)과 함께 중국에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한국타이어의 생산능력은 1초당 1.68개 정도로 설립 당시의 481배 수준이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외 공장 증설과 해외공장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2010년 이내에 누계 생산량 10억개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등 세계 170여개국에 타이어를 수출하는 세계 9위의 메이커이며 국내에서도 시장점유율이 48%로 1위에 올라 있다.

<화학저널 2005/01/04>